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회원 초청,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세미나」



농약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 생겨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지난 6월 9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회원 45명을 초청, 도심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우리 농산물 및 농약 안전성」 세미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총 1,2부로 나뉘어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대전생산센터에서 제1부로 농약안전성 세미나 및 제조생산시설 견학을, 제2부는 충남 금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안내 및 '추부깃잎' 과 '만인愛포도' GAP인증농가를 방문, 현장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국작물보호협회 조상학 상무는 환영사를 통해 “농약은 개발·등록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농약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잔류농약 걱정 없이 우리 농산물을 마음껏 섭취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부 「우리 농산물 및 농약 안전성」 강사로 나선 바이엘그룹 사이언스(주) 전략마케팅팀의 김경무 부장은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오해와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 강의 후 이론을 바탕으로 농약제품이 철저한 위생과 관리속에 생산·출하되는 대전생산센터의 생생한 현장견학과 연구시설을 둘러 보았다.

또 제2부는 충남 금산면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실시됐는데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강사로 나선 한국



GAP협회 김기태 총무는 식품안전성동향, 국내의 시장동향 및 GAP인증절차, 인증기준, GAP관리체계하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농약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은 GAP인증농가를 방문, 대형마트에 납품될 정도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추부깻잎' 과 '만인앰포도' 의 재배현장을 둘러본 후 직접 수확하고 시식하는 기회도 가졌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오는 7월과 8월에는 일선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성과 역할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제고시켜 기초교육의 근간인 초등학생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Y



미니인터뷰

전혜정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장

■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준치 00배 농약 검출' 뉴스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항상 농산물 구입에 있어서 농약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서 농산물을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지금 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 진다면 믿고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농산물 소비를 위한 당부의 말씀은 무엇인지요?

「사람을 보호하는 약은 '의약' 이고, 작물을 보호하는 약은 '농약'」이라는 문구를 통해 적용대상만 다르지 똑같은 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등록과정이 안전위주로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친환경농산물만을 고집하는 소비자들은 오늘 교육을 통해 이제는 우리 농산물 소비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에도 널리 알리어 불안한 인식이 믿음으로 바뀌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 오늘 교육에 있어 느낀점과 개선점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지요.

우선 농약제조공장의 시스템이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시 하는 식품공장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놀랍고 그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농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부녀회,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 교육 및 견학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언론·미디어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안전성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는 더욱 굳건해 지리라 여겨집니다.

